

도서관 관련도서 얼마나 나와 있나

교재 및 실무지침서가 대부분…도서관정책 관련도서는 미흡

새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전반적인 도서관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도서관 중심의 문화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그 시행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무관서의 변화와 의욕적인 지원계획에 비추어 그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 줄 만한 도서관 관련 도서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출간돼 있는 도서관 관련도서들은 크게 도서관학 전반에 걸친 이론중심의 개론서와 도서관 운영방법에 대한 유형별 해설서, 그리고 사례중심의 실무지침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들 중 급격히 신장한 현대 정보시스템을 도서관 운영에 도입한 광범위한 자료 서비스를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는 도서들이 눈길을 끈다. 반면 정작 행정적 차원에서 도서관정책을 다룬 도서들은 찾아볼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에 도서관 관련도서 20종을 간략한 해제와 함께 소개한다.

■ 도서관학 통론(최성진 지음)

자료조직법이나 분류법 등 세부적인 도서관학 각론보다는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기준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조명하는 데 비중을 둔 도서관학 개론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도서관이 맡은 책임과 기능, 그러한 기대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의 조직과 서비스 원칙, 각 도서관 또는 도서관 각 부서간의 유기적 관계, 미래 도서관의 발전방향, 도서관 운영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키 위한 도서관학의 내용과 연구방법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방식의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세아문화사 / A5신 / 550면 / 6000원

■ 도서관·정보학 개론(津田良成 엮음 / 김두홍 외 옮김)

현대사회 정보학의 급격한 부상으로 ‘정보학적 관점을 가미한 도서관학’이 기존 도서관학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목적과 대상, 정보의 흐름, 정보요구와 이용, 정보의 축적과 검색, 정보미디어, 정보관리조직의 관리와 운영 등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도서관·정보학

연구지침을 세밀히 작성해 개론서로서의 특색을 살리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에서의 도서관·정보학 커리큘럼과 교육환경, 2차대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도서관학 교육사를 소개하고 있다.

아세아문화사 / A5신 / 286면 / 3500원

■ 도서·인쇄·도서관사(김세익 지음)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수집·축적하는 기능을 도서관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는 저자가 인쇄술과 도서관의 발전사를 상호연관시켜 기술했다.

문자와 종이의 발명, 그 전파과정, 고대에서 근대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도서관사를 풍부한 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중세 봉건사회에서 기독교가 도서관에 미친 영향과 당시의 수도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의 도서관사 부분에서는 근대이전의 도서관을 교육기관·출판기관·연구소·도서관의 여러 요소가 혼합된 복합적 기능체로 규정한다.

종로서적 / A5신 / 264면 / 4000원

■ 圖書館學 教育史(임태삼 지음)

도서관학을 학제적(Interdisciplinary) 경영과 운영을 위한 현대의 새로운 학문분야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도서관학의 방향과 특히 대학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도서관학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기술된 도서관학사.

사회교육제도에 기초를 둔 미국의 도서관학 발전과정과 그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 근대적 도서관학에서 정보경영학으로 발전돼온 현재의 학제적 도서관학 교육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 도서관학 강좌를 최초로 개설한 멜빌 뉴이의 도서관사상을 비롯해 구미의 도서관학·정보학 교육관계 자료의 분석과 일본도서관학의 현황도 다루고 있다.

아세아문화사 / A5신 / 294면 / 4500원

■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사공철 외 엮음)

정보과학분야의 비약적 발전의 영향으로 새로운 개념과 기법이 속출하고 있는 최근 도서관학계의 추세를 최대한 수용한 국내유일의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이다.

총3부로 구성, 제1부는 ‘일반용어’ 편으로 도서관학·서지학·정보과학·출판·인쇄·제본 분야의 기본용어 7135개와 393개의 참조

어를 수록했으며 데이터베이스명과 단체명도 추가했다. 제2부 ‘약어·頭文字語’ 편에는 초록·색인지명, 학위명, 잡지명, 국명 등에 관한 약어 및 두문자어 1600여개를 자모순으로, 기타부분은 알파벳 순으로 해설했다. 제3부는 영한색인.

한국도서관협회 / A5신 / 356면 / 15000원

■ 학교도서관(教大도서관학연구회 엮음)

학교를 교육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무한한 지적·정서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학교의 심장’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교육대학 및 교원교육원 학생을 대상으로 국민학교도서관 사서교사용 지침서로 마련된 이 책은 국내 국민학교 도서관의 실정에 맞춰 내용을 구성하고 풍부한 실례를 제시, 도서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민학교 도서관의 조직 및 관리,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방법 및 운영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도서관교육에서 중시되는 ‘독서지도’ 방법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학文社 / A5신 / 390면 / 7000원

■ 학교도서관경영론(김기태·이만수 지음)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수의 학습생활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의미하며,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독서지도 및 도서관 이용지도·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자료센터.

교육과 학교도서관의 긴밀한 관계를 염두에 둔 운영과 조직방법에 초점을 둔 이 책은 바람직한 설계와 비품, 자료구성, 자료의 정리운영 등 특수도서관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무 양면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특수도서관과 연계된 국내외 학술연구단체와 외국 특수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센터 목록을 첨가.

한국도서관협회 / A5신 / 228면 / 3800원

■ 특수도서관(김경일 엮음)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특수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분야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특수도서관.

일반도서관과는 구별되는 특수도서관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그 정의와 본질을 비롯해 실무자 조직과 관리, 도서관 설계와 비품, 자료구성, 자료의 정리운영 등 특수도서관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무 양면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특수도서관과 연계된 국내외 학술연구단체와 외국 특수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센터 목록을 첨가.

한국도서관협회 / A5신 / 212면 / 4500원

■ 전자도서관(K. E. 돌린 지음 / 최석두 옮김)

유통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상을 저자의 현장체험과 함께 소개했다.

전자도서관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를 출

대학도서관과 국가발전의 역학적 관계와 대학도서관의 교육적·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조직·관리·장서구성·도서관 건물설계 등에 이르는 대학도서관 전반에 관한 개론서이자 실무경험에 바탕한 보고서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복사 등의 시청각서비스는 물론 전시회·음악회·강연회·연극공연 등을 대학도서관 특유의 도서관 보조업무로 보고 있다.

구미무역출판부 / A5신 / 230면 / 5000원

■ 어린이도서관(안네 후릿트 지음 / 김효정 옮김)

어린이 주변의 모든 자료원을 스스로 활용하여 자연스런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곳이 어린이도서관. 그러므로 확보된 자료양만큼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요구되며,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우선 어린이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음반이나 T.V., 그림책을 이용한 이야기 들려주기(story telling)를 통한 어린이도서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장식과 실무자를 위한 여러가지 지침을 비롯해 ‘어린이책’을 위한 국제기구와 관련자료들도 소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 A5신 / 228면 / 3800원

■ 특수도서관(김경일 엮음)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특수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분야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특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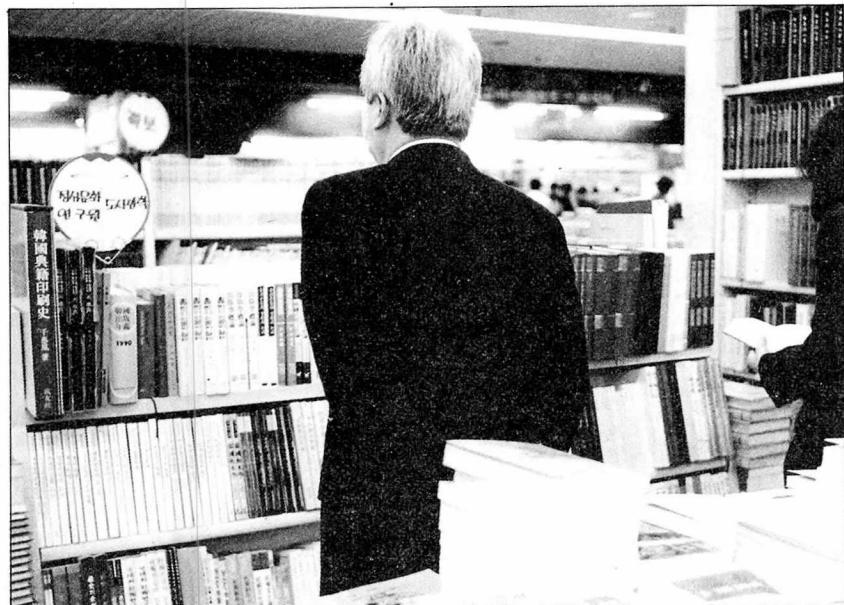
일반도서관과는 구별되는 특수도서관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그 정의와 본질을 비롯해 실무자 조직과 관리, 도서관 설계와 비품, 자료구성, 자료의 정리운영 등 특수도서관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무 양면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특수도서관과 연계된 국내외 학술연구단체와 외국 특수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센터 목록을 첨가.

한국도서관협회 / A5신 / 212면 / 4500원

■ 전자도서관(K. E. 돌린 지음 / 최석두 옮김)

유통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상을 저자의 현장체험과 함께 소개했다.

전자도서관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를 출



교보문고의 도서관 관련도서 코너.

판자료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자원센터로서의 서비스기능으로 보고, 컴퓨터로 정보를 관리하면서 전자채널로 도서관과 이용자를 연결해 관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전국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시스템이론'을 저자가 광장으로 있는 미국 콜로라도 파이스피 도서관 시스템을 예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역할은 폭넓은 지식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을 강조.

구미무역출판부 / A5신 / 248면 / 5000원

■ 공공도서관개발론(헨리 시 켐벨 지음 / 이병목 옮김)

그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공공도서관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중심의 개발적 입문서.

공공도서관 개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험사례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공도서관 보급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문화 혹은 여가활동 등과 관련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공공도서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장서개발과 지원형태, 그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과 사업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구미무역출판부 / B5 / 226면 / 5000원

■ 도서관 운영의 과학적 경영(R. M. 도거티, F. J. 하인리츠 지음 / 남태우, 정준민 옮김)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에 필수적인 도서관의 과학적 경영방법을 풍부한 실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시스템의 설계지침과 도서관 실무자와 노동환경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조사·설명하고 경영 책임자를 위해 비용분석·시간연구·통계자료 등도 소개. 수작업에 의존했던 도서관의 전통적 업무가 점진적으로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대체되면서 도서관의 '자동화운영'에 적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습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응용에 비중을 둔 내용으로 전공자는 물론 실무자에게도 의미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무역출판부 / A5신 / 258면 / 5000원

■ 圖書館 네트워크 構造論(이두영 지음)

도서선택과 자료정리 및 참고봉사 기능에 중점을 둔 '물리적 자족' 수준의 소극적 도서관에서 탈피해 '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개념에 입각,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서지적 식별 및 소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국내 여건에 맞는 도서관 네트 행정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현존하는 자료복사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용자의 요청 전달경로를 평가하는 등 도서관 각 기능에 적절한 기본적 유형을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구미무역출판부 / A5신 / 194면 / 5000원

■ 도서관과 자료의 활용법(신숙원·이순자 지음)

도서관 이용법 강의를 위한 교재로 도서관의 각종 업무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이용에 필요한 장서목록 이용법, 특수자료와 시설의 이용법,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업무에 대한 안내, 논문작성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중요 참고자료를 선정·해제해 이용자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도서관 자료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유기적인 문제접근으로 실제이용 학생뿐만 아니라 사서에게도 자료를 활용하는 체계적 방법에 대한 편람 역할을 해준다.

서강대출판부 / A5신 / 412면 / 6500원

■ 도서관 조직경영론(김세익 지음)

학문적 입장에서보다는 도서관 실무적 입장에서, 앞으로 실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도서관학 전공학생들을 위한 개론서.

도서관학과 커리큘럼의 '조직관리'나 '도서관경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도서관 경영의 배경, 도서관 조직체계, 시설과 설비, 직원, 도서관장의 책임, 도서관의 평가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도서관 제도와 연구의 제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이들과 비교한 국내 도서관 정책의 부실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아세아문화사 / A5신 / 242면 / 4000원

■ 도서관 서비스 평가론(F. W. Lancaster 지음 / 장혜란 옮김)

최근 학계와 사회전반에 조직성능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은 경영자, 사서, 이용자에 의해 세밀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책은 사례중심의 최신연구자료를 토대로 도서관의 대공중 서비스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에도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문헌전달 서비스 평가와 참고 서비스(질문응답 서비스와 문헌탐색 서비스) 평가는 물론 도서관 자원의 공동활용, 비용대 효과연구, 비용대 혜택연구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도서관 업무 평가도 다루고 있다.

구미무역출판부 / A5신 / 266면 / 6000원

■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J. H. 세라 지음 / 윤영 옮김)

도서관학의 학문적 성격과 기본 문제를 다룬

전문서로 '기록지식'과 독자, 사서와 이용자간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컴퓨터정보처리 응용문제도 취급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도서관은 하나의 사회조직으로 '사회적 기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 체계있게 제공하는 사회기관이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도서관학은 사회인식론의 기반 위에 그 학문적 토대를 가진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입장이다.

구미무역출판부 / A5신 / 172면 / 3800원

■ 美國圖書館思想의 研究(小倉親雄 지음 / 박희영 옮김)

이전의 도제견습적 형태의 교육에서 1887년 맬빌 뉴이에 의해 도서관학이 정규교육과목으로 발족,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도서관학 발전사와 그 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크게 뉴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뉴이의 도서관사상의 내용과 그 형성과정, 그가 재직했던 컬럼비아대에서 벌였던 도서관 운동, 그리고 유명한 뉴이분류법의 탄생 과정 등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뉴이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한 윌리엄슨의 보고서를 계기로 변화된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의 제유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세아문화사 / A5신 / 360면 / 6000원

■ 사회변혁을 위한 한국도서관운동론(강대훈 지음)

현재 국내 도서관의 역할이 개인과 실무능률 위주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대사회적인 '도서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서구학문의 영향하에 도서관학 역시 영·미의 기능주의적 특성을 따위왔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 속에서의 도서관 활동이라는 유기체적인 측면을 기능주의적으로만 한정할 경우 학문적 외연이 축소됨은 물론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사회운동적 관점을 담아내지 못하고 '몰사회적 성격'이 계속 심화될 뿐임을 주장한다.

도서출판광주 / A5신 / 212면 / 3000원

——정소연 기자